

전주 시내버스 노선 일부 조정된다

시민 의견 반영 6월 4일부터 부분 개편 운행... 200번·110번·103번 노선 신설·10개 노선 경유지 변경

전주시는 지난 2월 전주-완주 2단계 시간제 노선 개편 이후 시내버스 노선과 관련한 시민 의견을 반영해 부분 개편한 시내버스 노선을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내버스 노선 개편의 핵심은 200번과 110번, 103번 등 총 3개 노선을 신설하고, 101번, 2000번, 6001번, 6002번, 554번, 559번, 220번, 383번, 385번, 386번 등 총 10개 노선의 일부 경유지를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노선 조정으로 새로 생기는 노선과 중복되는 총 5개 노선(1-1번, 1-2번, 9-1번, 9-2번, 210번)은 폐지된다.

신설되는 200번은 전북혁신도시와 신시가지, 서곡, 서신동, 시의·고속터미널, 호성·우아동, 전주역, 아중리

를 운행하며, 110번은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팔복동, 시청, 남부시장을 운행한다. 103번은 아중리와 안골, 명주골네거리, 호성동, 송천동, 여의동을 운행한다.

전주의 남북을 연결하는 2000번 간선버스 노선은 2001번과 2002번으로 분리돼 각각 평화그린2차이파트와 서신동주민센터~이마트를 경유하게 된다. 현재 45분 배차간격으로 운행 중인 101번 노선은 하루 운행대수가 4배 늘어나고, 기존 전북대 중점에서 전주역 중점으로 기종점이 변경된다.

이와 함께 용머리고개와 완산동시의 버스터미널을 경유하는 554번과 559번 노선은 중화산동영무대마을 승강장과 예수병원으로 경유지가 바뀌고, 6001

번과 6002번 노선은 우림초교와 효자휴먼시아2·3단지 승강장으로 경유지가 변경된다.

시는 기존 10~12분 간격으로 운행해 온 간선버스를 일부 감차해 10~15분 간격으로 배차간격을 조정하고, 기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배차간격도 출퇴근 시간대와 낮 시간대로 구분해 탄력적으로 운영해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시내버스 노선 부분 개편으로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서신동, 중화산동 등 민원이 집중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오는 9월로 예정된 전주-완주 3단계 시간제(봉동, 용진, 삼례 방면)

노선 개편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월 19일 구이·소양·상관 방면으로 확대하고 간선버스 10개 노선 102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주-완주 시간제 노선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이후 시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완주군 및 버스회사 등과 논의과정을 거쳐 이번 부분개편안을 마련했다.

한편 이번 시내버스 부분 노선개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누리집(www.jonju.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주시 콜센터(063-222-1000) 또는 시 버스정책과(063-281-5104, 5106, 8490)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김남규 전주시의회 의장이 의회를 대표해 5·18 민주항쟁 기념행사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김남규 전주시의회, 5·18 의미 되새겨

5·18 민주항쟁 기념행사 참석 희생자 추모

김남규 전주시의회 의장이 의회를 대표해 5·18 민주항쟁 기념행사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김 의장은 42주년을 맞이한 5·18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이세종 열사 추모식에 참석해 추모비에 헌화하며 열사의 넋을 위로했다.

이 열사는 지난 1980년 5월 17일 전북대에서 계엄군을 상대로 농성하다가 이튿날 새벽 1시에 학생회관 아래서 숨진 채 발견됐고, 민주

화 항쟁 첫 희생자로 인정받아 국립 5·18 묘지에 안장됐다.

김 의장은 이어 열린 5·18 민주항쟁 기념식에도 참석해 민주항쟁의 의미를 되새겼다.

김 의장은 "5월의 역사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민주항쟁 정신을 이어가는 후대들의 기억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며 "전주시의회는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고 실현시키기 위한 자세를 항상 지키고 승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한옥마을 인근에 전주만의 한복 문화 재창조 공간 들어선다

시,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공모 선정... 국비 4억5000만원 확보

한복을 입은 여행객으로 가득한 전주한옥마을 인근에 한복 관련 거점시설이 들어선다.

전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김태훈, 이하 공진원)이 실시한 '2022년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4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는 지역 기반의 한복 관련시설을 조성해 한복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

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한복 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2021 한복문화주간' 행사를 추진한 (재)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진태)과 함께 한국전통문화전당 내 한복 문화 창작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 한복의 수요 확대와 한복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문화·산업을 창조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사업은 크게 창작소 조성과 초·중·고 한복

문화교육으로 나누어 추진된다.

먼저 기존 홍보관으로 활용돼 온 한국전통문화전당 1층과 2층 일부, 5층 공간은 한복문화창작소로 조성돼 한복 교육과 창작 활동이 가능한 창작스튜디오, 한복 쇼룸, 한복 자료실 등을 갖추게 된다. 특히 한복문화창작소는 한복 전통계승을 위한 교육 공간뿐 아니라 한복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산업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재교육 및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활용돼 전주만의 한복 문화를 재창조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전주지역 50개 초·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복 문화교육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총 8명의 전문 강사가 6월 중 강의와 워크숍을 걸쳐 육성되며, 하반기부터는 교육에 투입될 예정이다.

시와 전당은 한복교육 참여를 돕기 위해 각 학교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복 교육사업 홍보회도 열 계획이다.

한편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는 올해를 시작으로 향후 3년간 도입기-성장기-확장기를 거쳐 한복 산업의 안정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한복 특화도시로서 발전 및 세계 속 K-패션 위상을 강화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공무원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 릴레이 추진

전주시 공무원들이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책을 읽는다.

시는 조지 내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 책임기 프로그램인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 꼬꼬독'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꼬꼬독'은 책의도시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는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직원들이 첫 번째 주자가 돼 다른 직원들과 공유하고 싶은 책을 직접 선정해 읽은 후 다른 부서 직원들과 함께 릴레이 형태로 읽고 소통을 하는 독서활동이다.

꼬꼬독 프로그램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형배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도 모두 동참하기로 했다. 첫 주자로 나선 김승수 시장과 박형배 부시장은 각각 이영림 작가의 '바지마수업'과 김우리 작가의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를 선택했다.

꼬꼬독 프로그램으로 최종 선정된 도서는 약 140여 권이다. 1권당 릴레이 주자가 10명이라고 추산할 때, 전주시 전 직원의 절반 정도가 책읽기에 동참하게 된다. /김윤상 기자

시는 책을 읽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기록할 수 있도록 책풍선 메모지를 같이 제공해 간단한 서평이나 전하고 싶은 말 등을 자유롭게 기록하고 메모와 추천도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약 8개월간 진행되는 '꼬꼬독' 활동에서 릴레이 주자가 가장 많은 책은 다독도서로 선정된다. 이와 함께 모든 도서와 책에 남겨진 기록들은 시청 로비 책기둥도서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이 한 권의 책을 읽고 나눔으로써 서로의 생각과 가치를 공유하고, 자연스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조지 내 책 읽는 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라기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 릴레이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책의 도시인 전주의 행정을 이끌어가는 공직 내부에서도 자연스러운 독서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민에게 다가가는 힘찬 여정 시작합니다"

우범기 전주시장 후보, 출정식 갖고 본격 선거운동 돌입



우범기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후보가 오늘 오후 2시 시청에서 '강한경제 전주대변형'을 기치로 6.1 지방선거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우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18일 "전주시민에게 다가가는 힘찬 여정을 시작합니다. 생생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전주발전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라며 선거운동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김윤상 기자

"디지털 인재 10만명 양성할 예산 가져오겠다"

김경민 전주시장 후보, 디지털플랫폼 중심도시 전주 실현 위해



국민의 힘 김경민 전주시장 후보가 디지털플랫폼 중심도시 전주를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인재 10만명 양성을 위한 예산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했다.

김경민 후보는 18일 정책발표를 통해 "20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는 로드맵에서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을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디지털플랫폼 중심도시, 전주는 반드시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이다. 윤석열 정부의 인재양성 예산, 가져오겠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인수위가 2026년까지 5년간 국내 디지털 인력수요는 76만4000명인데 반해, 교육기관 등을 통한 디지털인력 공급지는 41만3000명에 불과해, 36만1000명의 수급격차가 발생한다. 여기에 취업률이 70%인 점을 감안하면, 100만명 이상의 인재 양성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전주에 10만명의 디지털 인재양성은 지역배분이나 역할에서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구체적으로 "대학 내·외 자원을 활용하여 디지털·메타버스·반도체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고, 첨단 분야 학과 신·증설 및 신산업 인재양성 계획을 수립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계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프로그램과 급변하는 기술·산업흐름에 맞춰 융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대학 간 공유체제도 활성화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와 문화통신사업조합은 노송동 일원에서 지역 인문자원 및 마을 인문콘텐츠 발굴을 위한 '북작북작 마을 인문학 출판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체 복원 위한 마을 인문학 출판소 운영

전주시·문화통신사업조합, 노송동 일원서 프로그램 진행

성매대집결지에서 문화예술마을로 거듭난 전주시 노송동 일원에서 마을 공동체 복원을 위한 마을 인문학 출판소가 운영된다.

전주시와 문화통신사업조합은 노송동 일원에서 지역 인문자원 및 마을 인문콘텐츠 발굴을 위한 '북작북작 마을 인문학 출판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11일 노송동 네뽀예술마트에서 마을주민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강한 '추억의 왼손그림'과 '사건으로 보는 이야기' 등 두 가지 인문교육으로 진행된다.

특히 추억의 왼손그림 교육은 왼손그림 작자로 알려진 김경배 글마을조각가의 강의를 따라 왼손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시집을 읽으며 직접 시도 써보는 프로그램이다. 주민들이 그린 왼손 그림과 시는 교육이 끝나고 전시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또, 작품들을 담은 시화집도 발간되고, 모든 과정은 영상으로 남겨져 상영된다.

교육에 참여한 한 주민은 "그동안 이웃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교육을 하면서 마을 사람도 만나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서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인숙 전주시 인문평생교육과정은 "전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문도시"라며 "마을 인문학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인문학의 새로운 확장장을 피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경력단절여성 동아리 활동 지원

전주시가 결혼과 출산, 양육 등이 이유로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과 직장생활 적응을 돕는다.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박성숙)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경력단절여성 이 취업 시 직장 내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워킹맘 워라밸 행복찾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워킹맘 워라밸 행복찾기' 사업은 경력단절여성의 직무역량 개발을 돕고, 직장 내 구성원간의 친밀감을 향상시켜 궁극 및 재직 여성의 직장 적응을 지원하는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이다. /김윤상 기자

이를 위해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난 3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15개 동아리의 신청을 이 가운데 학습동아리 2곳과 경력개발동아리 2곳 등 총 7개 동아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동아리는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최대 2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받아 기업 내 여성노동자 친목활동 촉진 및 취업자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활동에 나서게 된다.

이외에도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카페 스티즌 음악회 스탠드업무문화향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